



◇원주 화암사가는 길에 선 돌미륵.

# 민중과 더불어 울고 웃는 미륵

## 감성으로 보는 **전**

<10> 사무량심의 지킴이-돌미륵

절 길에 들어서면 눈앞에 먼저 뜨이는 게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가계를 치러 놓고 버젓이 장사하는, 이른바 장사꾼들이 많지만 길 가엔 보파리를 늘어놓고 울망쫄망 앉아서 장사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장사들업으로 하는 장사꾼들이 아니라, 집에서 텃밭처럼 가꾼 소출한 콩이나 팥 따위 작물, 산 또는 들에서 직접 캐온 나물들을 '반짝 장사'로 잠깐 동안만 팔고 돌아가는 아주네 또는 할머니들이다. 피부가 거칠게 탄 아주네 그리고 허리고 부러진 할머니들이 작은 보자기에 늘어놓고 파는 이 모습은 왠지 언제나 나를 향한 살레임 속에 그들 앞에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오천원만 줘." "오천원? 나는 놀란다. 도시에서 점심먹고 당달이 마시는 두잔 커피값도 안되네. 그 보기도, 상상한 고사리 신나물이 나는 참으로 신기롭고, 할머니의 푸글푸글한 손마디, 가락은 더없이 나를 감동시킨다.

어느날이었다. 남도의 어떤 절에 몇몇 사람과 같이 갔다. 같이 간 한 분중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은퇴목사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평생을 가난한 교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목회를 하고 은퇴한 분이였다. 평생을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몸 바친 분이어서 그런지, 그분의 언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화하고, 온화한. 그런 목사와는 아주 달랐다. 몹시 거칠고, 말하자면 '딱딱'과 목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런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언젠가 나에게 슬쩍 변명 비슷하게 고백을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진 '자'들과 싸우며 살려면 이리저리 알아선 안된

### 미륵은 절 초입·뒷산에서 눈·비 맞으며 중생 기다려

다는 거였다. 그게 아주 성격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 분은 의리파여서 내가 뭐를 사려고 하면 얼른 뛰어와서 돈을 치러주는 충성심을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였다. 나는 늘 고맙게 호의를 받는 편이지만 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날은 좀 달랐다. 할머니와 그 목사님은 흥정을 하고 있었다. "이거 얼마예요?" "오천원만 줘요." "이거 진짜예요? 좀 깎아줘." 나는 얼른 돈을 내 주고 까만 비닐 봉투에 산나물을 담아주고 도망쳐 왔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목회했다는 분이 혹시 '초매(초매초기증상)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 아닌가? 오천원 깎아줘야 서울에서 커피 한잔 값인데, 그걸 깎아줘야 속이 시원할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돈 있는 이들이 이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좀 화가 난다. 그것이 좀 엉터리 물건이면 어쩔고, 좀 비

싼들 집안 기둥뿌리가 빠지는 것도 아닌데, 절에 가서도 그렇게 '나'를 못 버려? 나는 그들과 한마디 말 건네는 것. 내가 그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 몽땅 털어놨자 몇만원에 지나지 않는 보자기의 물건, 그것을 다 팔고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가 손자의 손에 몇 푼 집어줄때의 그 즐거움이란 지난 삶의 온 시름을 다 풀고도 남는 기쁨이 아닐까? 나 혼자 상상해 본다.

우린 너무 높이 앉아 있다. 그리고 내 가슴밖에 너무 높이 담을 쌓아 놓고 산다. 얼음산.

요즘 TV연속극의 '왕건'이 인기라고 세상이 떠들썩하다. 아마 궁에 역의 연기가 독특한 삶을 살아 온 궁예의 일생과 아울러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됐건 세상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온 미륵이라고 큰 소리 치던 궁예가 몰락의 길로 들어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궁예도 처음엔 정말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의 삶에 무량 자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구해 보겠다는 무량 보리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가 왜 몰락 했을까? 그것은 그가 쓰지랑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국가'라고 하는 '제도의 틀' 속에 군림함으로써 이미 미륵의 중생을 잃게 된 때문일 것이다. 종교는 제도의 틀 속에서는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미륵은 천상의 상상(上)신세지에서는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 오셔서, 내 마음속에 미륵이 되는 세상이 곧 불국정토가 아닐까? 그러므로 미륵은 황금빛 옷을 입고 '대웅'으로 '큰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 초입이나 절 뒷산에 허름하게 비와 눈을 맞으며 우리를 맞이하는 것임을 나는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돌 미륵을 보고 사범행(四梵行)의 길을 깨닫고, 돌미륵에게 절한다.

전생(사건)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 '사자상승' 도도한 禪宗 인물사

한글대장경의 세계

전등록

전등록(傳燈錄)은 과거7불과 천축의 28조, 진단(震旦)의 초조 보리달마와 그 후대로 이어지는 인도와 중국의 두 나라, 우리나라의 중국 유학승 등 선문의 선장(禪宗)들을 전등상승(傳燈相承)의 차례에 따라 열거한 선종의 인물사다. 각 조사와 선사(僧)의 성, 속가의 가계, 출생지, 수행 경력, 주석한 곳, 입적한 연대, 세수, 시호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경덕전등록(敬德傳燈錄)>이다. 경덕은 남송(南宋)의 연호인데 연호가 책의 이름 앞에 붙은 것은 저자 도원(道源)이 남송 원년에 이 전등록을 황제인 진종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진종은 1년 동안 이 책을 교정토록 했는데 그 이전에 도원이 언제부터 저술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현재 전하는 전등록이 그대로 도원의 편자( 편자)라고 볼 수 없다. 가깝고 짐작이 이뤄 졌다는 것이다.

전등록의 편자인 도원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다. 일부의 기록에 의해 그가 동오(東吳) 출신으로 천태역사(天台雜誌)의 법을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등록은 모두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에 있어서 간행 번호는 19권부터 81권까지의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권에는 비파시불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7불과 제1조(圖)인 마하가섭으로부터 제14조에 이르는 용수에 이르는 14명과 제2조 아난에서 방계로 뻗은 천축의 15명 조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중 과거 7불과 13명 조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전등록은 그야말로 도도하게 흐르는 불교의 역사 가운데 큰 줄기인 선불교의 인물사인 셈이다. 28권까지는 선사들의 행적



과 문답 등에 대한 기록이 차지하고 있지만 29권과 30권은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기록들을 정리했다. 29권에는 귀종지상(歸宗智常)과 백거이 등의 찬, 송, 계, 시 등이 17종 222수가 실렸으며 30권에는 부대사의 심왕명(心王銘)을 비롯한 23종의 명(銘) 기(記) 잠(讚) 가(歌)를 실고 있다.

2권에서 주목할 점은 보리달마가 과거 7불과 천축 28조의 법맥을 이어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선종의 초조로 확고하게 삼승으로써 중국 선종이 인도의 7불이래 면면히 사자상승한 불교로서의 권위를 확립한 것이다. 3권에서는 보리달마의 기록이 등장하고 5권에서 해능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또 하나 전등록이 갖는 중요성은 공안이라는 선불교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1700공안이라고 하는 말이 전등록이 52(冊) 1701명의 이름을 들어 그 어구를 수록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남송 도원스님 편자

1701명 선사 행적 기록

내용이다. 10세기의 중국은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그로부터 반세기 이전에 불교는 무종에 의한 회창(會昌) 법난을 겪었다. 선은 이러한 과도기의 전란이 미치지 않는 양자강 이남의 평화로운 땅에서 공안이라는 새로운 가풍을 형성하며 활기를 힘차게 행어갔으며 그 과정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승들의 문답과 행적들이 알알이 선불교의 지킴이 된 것이다.

조당집에 비해 훨씬 하대의 선사들까지 망라해 소개하고 있는 점과 공안의 집중이라는 성과로 인해 전등록은 돋보이는 것이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yim@buddhapa.com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통금 078-02-079975 예금주 김계술(석주스님).

## 당신이 몰라주셔도

비리만 봐도 좋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부터 번지고  
사골 소녀처럼 시과(詩)로 불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미소에 아찔해지고  
당신의 행복에 남몰래 기뻐했던 33년.  
당신이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몰처럼, 공기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꽃이 피는 미끄럼틀이 철이라는 것을 몰라주셔도,  
자전거의 바퀴에 철이 있다는 것을 몰라주셔도,  
그리고 그 철을 만드는 포스코를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철이 있어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철이 있어 세상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이므로  
철도, 포스코도 행복하니까요.

세상을 향한 철의 마음이 그저 짝사랑일지라도  
포스코는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

